

# 모음조화 예외 출현 비율에 대한 통시적 해석

한영균\*

## 1. 서론

1.1. 졸고(1994)에서 필자는 후기 중세국어의 문헌을 각각의 문헌들이 지니고 있는 특성을 바탕으로 11개 군으로 나누고, 각각의 문헌군에서의 모음조화 실현 양상을 분석한 바 있다.<sup>1)</sup> 이 글은 졸고(1994) 3장에서 얻어진 각 문헌군별의 모

---

\* 울산대 교수

1) 검토 대상이 된 11개 문헌군은 다음과 같다.

제1군 : 《용비어천가》 《석보상절》 《월인천강지곡》 《훈민정음언해》

제2군 : 《능엄경언해(목판본)》 《법화경언해》 《선종영가집언해》 《금강경언해》  
《반야심경언해》 《원각경언해》

제3군 : 《두시언해》

제4군 : 《금강경삼가해》 《남명천재송언해》

제5군 : 《진언권공·삼단시식문언해》 《육조대사법보단경언해》

제6군 : 《번역노걸대》 《번역박통사》 《번역소학》 《이률해설도》 《정속언해》

제7군 : 《몽산화상육도보설언해》 《선가귀감언해》 《초발심자경문(송광사판)》  
《부모온중경언해(징광사판)》

제8군 : 《초발심자경문(서봉사판)》

제9군 : 《분문온역이해방》 《간이벽온방》 《우마양저염역병치료방》 《구황촬요》

제10군 : 《소학언해》

음조화 예외 출현 양상에 대한 공시적 분석 결과를 토대로 체언과 격조사 결합에서의<sup>2)</sup> <예외유형 1>과 <예외유형 2><sup>3)</sup>의 비율이 통시적으로 어떠한 추이를 보이는지를 검토함으로써 모음조화 예외 출현 비율의 일반적 추세를 파악하고, 그를 바탕으로 각 문헌군에서 모음조화에 어긋나는 예들의 비율이 사적 추이와 비교할 때 어떤 위상을 지니는지를 밝히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작업은 모음조화의 봉괴 과정을 사적인 관점에서 올바로 이해하는 데에 기초가 될 것이다.<sup>4)</sup> 또한 모음조화 봉괴 유인에 대한 음운론적 해석의 토대가 될 것이다.

### 1.2. 이 글에서의 논의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예외의 출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예외 비율의 통시적 추이를 바탕으로 한 문헌군별 위상 설정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요소들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한다.

3장에서는 한자어와 격조사 결합에서의 모음조화에서 예외적 용법을 보이는 예들의 비율이 통시적으로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를 <예외유형 1>과 <예외유형 2>로 나누어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후기 중세국어 문헌에서의 모음조화 예외 출현 비율의 통시적 추이를 확인하고 그러한 통시적 추이와 각 문헌군에서의 예외 출현 비율의 비교를 통하여 후기 중세국어의 문헌들이 크게 세 그룹으

#### 제11군 : 사서언해(도산서원본)

검토에 사용된 각 문헌의 서지 사항 및 문헌군 분류의 배경에 대해서는 졸고(1994) 1장 및 3.1.1. 참조

- 2) 이 글에서의 논의는 체언과 격조사 결합에서의 모음조화에 한정한다. 용언 어미의 모음조화에서의 예외 출현 비율은 통시적인 추이를 다룰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졸고(1994) 3.2.3. 참조
- 3) 모음조화의 예외는 설축모음 어간 뒤에 설소축 계열의 조사나 어미가 결합하는 경우와 설소축모음 어간 뒤에 설축 계열의 조사나 어미가 결합하는 경우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본고에서는 전자를 <예외유형 1>로 후자를 <예외유형 2>로 지칭한다.
- 4) 모음조화 시현 양상의 통시적 변화에 대해서는 졸고(1994) 4장에서 <예외유형 1>과 <예외유형 2>의 대비를 중심으로 간단히 검토한 바 있다. 그러나 문헌군별 모음조화의 차이나 격조사 혹은 어미별 모음조화 실현 양상의 차이가 지니는 의미에 대한 검토, 모음조화 봉괴 과정에 대한 음운사적 해석 등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 글은 그에 대한 보완 작업의 한 부분이다.

로 나뉠 수 있음을 보일 것이다. 또한 각각의 그룹에서의 <예외유형 1>과 <예외유형 2>의 상관 관계를 바탕으로 세 그룹으로 가쁜 문헌들이 각각 모음조화의 봉괴과정에서 어떤 위치에 놓이는 것인지를 검토하고, 모음조화 봉괴의 일반적 추이에서 벗어나는 양상을 보이는 문헌들에 대하여 그러한 차이가 언어 내적 유인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언어 외적 유인에 의한 것인지를 살펴 것이다.

4장에서는 고유어와 격조사 결합에서의 모음조화에서 예외적 용법을 보이는 예들의 비율을 한자어와 격조사 결합의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검토한다. 특히 <예외유형 2>의 비율 추이에서 다른 문헌군들과 달리 특히 높은 비율을 보이는 문헌들에서의 <예외유형 2>의 비율이 보이는 특이성을 밝히고 이의 처리 방법을 밝힌다.

5장은 이 글의 결론 부분으로 2장~4장에서의 논의를 요약하고,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들을 정리한다.

## 2. 모음조화 예외 출현 비율의 추이 해석을 위한 전제

2.1. 모음조화의 실현 양상에 대한 통시적 분석에서 예외의 출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다음의 여섯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어간의 음운 구조.

둘째, 격조사 및 어미의 내적 구조.

셋째, 어간의 어휘 범주.

넷째, 격조사 및 어미의 형태론적 범주.

다섯째, <예외유형 1>과 <예외유형 2>의 상관 관계.

여섯째, 분석 대상이 된 문헌 자료의 성격.

이들 중 앞의 네 요소는 모음조화라는 음운규칙의 구조를 결정짓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나머지 두 요소는 모음조화의 실현 양상에 대한 해석에서 참조되어야 할 요소라 할 것이다.

전자에 대해서는 모음조화를 다룬 기존의 연구를 통해 폭넓게 논의된 바 있어서<sup>5)</sup> 이 글에서는 이들 용어가 무슨 의미인지 혹은 모음조화의 실현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반복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나머지 두 요소에 대해서는 다소 부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의 모음조화 봉괴 과정에 대한 연구에서 별로 논의된 적이 없는 문제이기도 하고, 또 이들이 이 글에서의 논의에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sup>6)</sup>

2.2. <예외유형 1>과 <예외유형 2>의 상관 관계는 모음조화 봉괴 과정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예외유형 1>의 비율과 <예외유형 2>의 비율 중 하나가 다른 하나에 비례적으로 종속되는 경우. 통시적으로 두 예외유형 중의 하나의 비율이 다른 하나의 비율보다 일관되게 높고, 그 증감의 방향이 일정한 경우를 의미한다. 국어 음운사에서 이른바 역표기라고 지칭되는 현상이 이론적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면 이러한 양상을 보이리라고 예측할 수 있다. 역표기를 유발한 음운변화는 역표기의 예보다 일찍 그리고 광범위하게 확산되리라고 추론할 수 있고, 그 결과 역표기의 동인이 된 음운변화를 겪은 어형들의 비율은 역표기를 반영한 예들의 비율보다 항상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 모음조화 규칙의 경우로 좁혀서 본다면 <예외유형 1>과 <예외유형 2> 중 하나가 다른 하나의 원인이 되었거나, 동일한 유인에 의해 두 예외용법이 발생하되 그 적용 양상이 다르다면 두 예외용법 중 하나가 다른 하나에 비해 항상 높은 비율로 그리고 폭넓게 나타날 수 것

5) 후기 중세국어의 모음조화의 기본 골격은 이승녕(1947), 모음조화의 실현에 가해지는 형태론적 제약의 정밀화 및 음운론적 제약에 대해서는 김완진(1971), 음운론적 규칙의 정밀화에 대해서는 도수희(1970, 1985), 예외의 음운론적 처리에 관한 논의는 김완진(1986) 등 참조.

6) 이 글에서의 논의 중 많은 부분은 선행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바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모음조화 봉괴 유인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와 신해를 달리 한다. 이 글의 목적이 모음조화 봉괴의 유인에 대한 해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외적 용법의 출현 양상이 15~16세기의 문현군별로 다른 양상을 보임을 확인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데 있는 것이어서 자세히 논급할 여유는 없지만, 모음조화 봉괴 유인에 대한 음운론적 검토의 결과는 기존의 모음조화 봉괴 유인에 대한 이해에 적지 않은 부족한 부분이 있었음을 보여 준다. 이에 대해서는 졸고(1996) 참조.

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 <예외유형 1>과 <예외유형 2>가 서로 대척적인 양상을 보이는 경우. 이는 모음조화의 대상이 되는 격조사나 어미가 어느 한 형태로 통합될 때의 <예외유형 1>과 <예외유형 2>의 관계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sup>7)</sup> 예를 들어 A라는 문헌에서 주제격 조사 '는'과 '는'을 구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는'만 사용하는 경우 <예외유형 2>의 비율은 100%가 될 것이고 <예외유형 1>의 비율은 0%가 될 것이다. 이 때 <예외유형 1>만 검토한다면 A라는 문헌이 모음조화를 철저히 지키는 것으로 해석하는 오류에 빠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모음조화의 봉괴 양상에 대한 검토에서는 반드시 <예외유형 1>과 <예외유형 2>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셋째, <예외유형 1>의 비율과 <예외유형 2>의 비율 사이의 상관 관계를 논할 수 없는 경우. 이는 <예외유형 1>과 <예외유형 2>가 서로 아무 관계가 없는 별개의 유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김완진(1985)에서의 분석처럼 한자어와 주제격·대격 조사의 모음조화에서 보이는 <예외유형 1>이 한문의 독법에 영향을 받은 것이고, <예외유형 2>는 규칙의 수의적 적용이라는 음운론적 유인에 의한 것이라면 <예외유형 1>의 비율과 <예외유형 2>의 관계에서 규칙성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예외유형 1>과 <예외유형 2>의 상관 관계는 하나의 유형이 15~16세기 전반에 걸쳐 적용될 수도 있지만, 모음 사이의 대립을 반영하는 규칙이라는 모음조화의 특성상 <예외유형 1>과 <예외유형 2>의 상관 관계가 변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즉 모음조화의 봉괴 초기에는 첫째 유형처럼 <예외유형 1>과 <예외유형 2>의 비율이 정비례하는 양상을 보이던 것이, 모음조화의 봉괴가 거의 완료된 단계에 이르면 둘째 유형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다. 한자어와 속격 조사 결합의 예가 대표적인데, 초기에는 <예외유형 2>의 비율이 20%까지 이르지만 16세기 말의 문헌에서는 거의 0%로 나타난다. 이는 한자어

7) 이러한 통합은 형태론적 단일화로 해석할 수도 있고 해당 형태소가 모음조화의 권역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모음조화의 봉괴 양상에 대한 음운사적 해석이 달라질 것이다.

와 결합하는 속격 조사가 ‘의’로 통합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예외유형 1>과 <예외유형 2>의 상관 관계에 바탕을 둔 해석에서는 이에 유의하여야 하며 아울러 모음조화 붕괴 초기나 말기가 아닌 시기 즉 모음 조화 붕괴의 중간 단계에는 양자의 관계가 불규칙할 수 있음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2.3. 분석 대상 문헌 자료의 성격을 결정짓는 요소로는 문헌의 간행 시기·간행 주관자 혹은 편찬자·간행지·한자음 주음 방식을 비롯한 언해 방식 등을 들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들은 모음조화 붕괴 유인의 도출이나 음운론적 관점에서의 모음조화에 대한 분석과 직접 관계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적인 관점에서 모음조화의 붕괴 과정을 다루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문제 중의 하나다. 즉 개별 문헌에서의 모음조화의 실현 양상이 과연 국어사의 관점에서 일반적인 흐름에 부합하는 것인가 아니면 해당 문헌 자료가 지니고 있는 특수성에 기인한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모음조화 붕괴의 일반적 흐름을 파악하는 데이나 모음조화 붕괴의 유인을 규명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질적인 방언을 배경으로 하는 문헌 사이의 모음조화 실현 양상을 동등하게 다루거나, 예외 출현의 유인이 모음사적인 것이 아닌 데에도 모음사적 관점에서 해석하려 한다면 올바른 결론에 도달하지 못할 것임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 3. 문헌군간 모음조화 예외용법 비율 대비 I: 한자어의 경우

3.1. 이 글에서의 논의는 졸고(1994) 4장에서와 같이 문헌군별로 얻어진 예외의 비율을 바탕으로 그래프를 작성하고<sup>8)</sup> 그 추이를 통시적 관점에서 살피는 방식을 취한다. 다만 주1)에 제시한 11개 문헌군 중에서 제9군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9군을 구성하는 문헌은 《분문온역이해방》 《간이벽온방》 《우마양저염역병치료방》 《구황촬요》 등 이른바 의학서류들인데, 다른 문헌군과는

8) 이 글에서의 예외 비율의 통계는 전적으로 졸고(1994) 3장에서 얻어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달리 문헌들 사이의 간행 시기의 폭이 넓고,<sup>9)</sup> 문헌만 다를 뿐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서 동일한 용례가 반복 계산됨으로써 용례의 예외 비율이 실제 와는 달리 높아진 것으로 보이며, 한자어와 결합하는 용례의 수가 지나치게 적어서<sup>10)</sup> 예외 출현 비율의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sup>11)</sup>

또한 이 글에서의 모음조화 예외 비율의 검토는 주제격 '온/은', 대격 '을/을' 속격 '이/의'의 경우에 한정한다.<sup>12)</sup> 주제격 '는/는' 및 대격 '률/률'은 이 글에서 검토 대상으로 한 '온/은, 을/을, 이/의'의 모음조화 붕괴 과정과는 다른 유인에 의해 모음조화의 권역에서 벗어나는바 예외 비율의 추이가 전혀 다르며, 처격 조사 '애/에'의 경우는 예외의 비율이 전체적으로 낮아서 예외 비율의 추세를 검토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고,<sup>13)</sup> 조격 조사의 경우는 용례가 적어서 빈칸으로 남는 경우가 많아 추이를 파악하는 데에 오히려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sup>14)</sup>

9) 졸고(1994)에서 분석 대상이 된 제9군 문헌의 간행 시기는 각각 다음과 같다. 《분문온역 이해방》(원간 1542년 부전 : 16세기 복각본 사용), 《간이벽온방》(1578년 올해자본), 《우미양저염역병치료방》(1578년 올해자본), 《구황활요》(1584 고대소장 필사본).

10) 한자어와 결합하는 7개 범주 격조사의 용례가 모두 합해 36개에 불과하다.

11) 이런 점에서는 제8군 문헌의 경우도 비슷하다. 제8군에 속하는 문헌은 《초발심자경문 (서봉사판)》 하나뿐인바, <예외유형 2>의 비율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는 그 수가 너무 적어서 신뢰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단적으로 설소축 모음 어간과 결합하는 주제격 조사 '온/은'의 용례는 고유어의 경우 4개, 한자어의 경우는 9개에 불과하며, 대격 조사 '을/을'의 용례는 각각 31개, 3개, 속격 조사 '이/의'의 용례는 9개, 19개인 것이다. 16세기 중엽에 간행된 중앙어 문헌으로는 제9군의 문헌을 제외하면 《초발심자경문(서봉사판)》 하나뿐이어서 어쩔 수 없이 비교의 대상으로 삼기는 했으나, 해석에서는 이 점에 유의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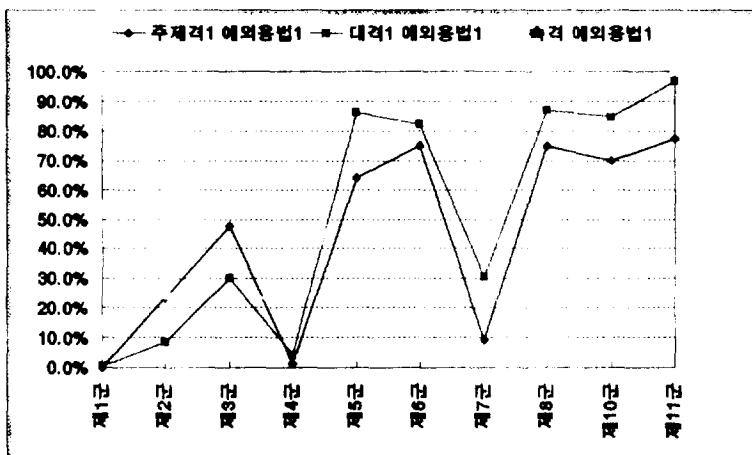
12) 이 글에서의 속격 조사의 예외 비율 속에는 이른바 특수 처격이라고 지칭되는 '이/의'의 비율도 포함된다. 형태론적으로 같은 범주이지만 일반적인 처격 조사 '애/에'와는 모음 조화에서의 행태가 전혀 다르고, 오히려 음운구조가 같은 속격 조사 '이/의'와 같은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모음조화의 실현에 문법 범주보다는 음운구조가 더 큰 영향을 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13) 그러나 처격 조사의 모음조화 예외 비율의 추이는 속격 조사의 그것과 함께 모음사적 관점에서 모음조화 붕괴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졸고(1996) 참조.

14) 문헌군별 모음조화 붕괴 양상의 해석에서는 고유어와 한자어의 예외용법의 대비도 중요 한데, 제4군 이후의 문헌에서는 고유어와 결합하는 조격 조사의 용례가 10여 개에 불과한 경우가 많아서 예외 비율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도 조격조사의 예외용법 추이선을 포함하지 않은 이유의 하나다. 이 글에서의 논의에 포함하지 않은 격조사들의 모음조화

3.2. [그래프 1]은 주제격 조사 ‘온/은’ 대격 조사 ‘을/을’<sup>15)</sup> 속격 조사 ‘의/의’가 한자어와 결합할 때의 <예외유형 1>의 비율의 추이를 보인 것이다. X축의 값은 문헌군을 간행 시기 순으로 배열한 것이므로 시간의 흐름을 나타낸다고 할

[그래프 1] 한자어와 격조사의 모음조화 &lt;예외유형 1&gt; 비율 추이



수 있으며,<sup>16)</sup> Y축의 값은 <예외유형 1>의 비율을 나타낸다.

이 그래프의 <예외유형 1>의 분포를 통해서 우리는 모음조화의 예외 출현

실현 양상에 대해서는 모음조화 불과 유인을 검토한 졸고(1996)에서 다루었다.

- 15) 그래프 작성 도구에서는 고어를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래프의 범례에서는 주제격 조사 ‘온/은’을 주제격1로, 주제격 조사 ‘는/는’을 주제격2로, 대격 조사 ‘을/을’은 대격1로, 대격 조사 ‘를/를’은 대격2로 표시한다. 이하의 그래프에서도 같다.
- 16) 각 문헌의 간행 시기는 다음과 같다. 제1군 문헌 1447년, 제2군 문헌 1461년~1465년, 제3군 문헌 1481년, 제4군 문헌 1482년, 제5군 문헌 1496년, 제6군 문헌 1517년~1518년, 제7군 문헌 1567년~1580년, 제8군 문헌 1583년, 제10군 문헌 1586년, 제11군 문헌 1590년. 따라서 각 문헌군 사이의 간년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1군~2군 : 14~18년, 2군~3군 : 16~20년, 3군~4군 : 1년, 4군~5군 : 14년, 5군~6군 : 21~22년, 6군~7군 : 19~23년, 7군~8군 : 3년~16년, 8군~10군 : 3년, 10군~11군 : 4년. 결국 3군과 4군, 8군·10군·11군이 각각 비슷한 시기에 간행된 것이며, 나머지 문헌군의 경우에는 대체로 15년~20년의 간격을 두고 있다고 할 것이다.

비율과 관련된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문헌군별 증감은 있을지라도 후대로 내려올수록 예외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모음조화가 약화되는 과정을 밟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추론은 앞으로의 검토를 통해 더욱 분명해질 것인데, 이런 점에서 제4군 문헌과 제7군 문헌들은 그 이전 시기 문헌들에 비해 예외 비율의 감소를 보이는 것이 주목된다.

둘째, 주제격 조사 ‘온/은’, 대격 조사 ‘을/을’ 속격 조사 ‘이/의’의 예외적 용법의 비율이 보이는 추세가 같다라는 점이다. 즉 임의의 어떤 문헌군에서의 주제격 ‘온/은’의 <예외유형 1>의 비율이 다른 문헌군의 주제격 ‘온/은’의 <예외유형 1>의 비율보다 높으면 다른 두 격조사의 <예외유형 1>의 비율도 높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sup>17)</sup> 이는 한자어와 결합하는 격조사의 <예외유형 1>에 한정하여 본다면 이들 세 격조사의 모음조화가 동일한 유인에 의해서 약화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모음조화의 예외 비율을 바탕으로 열 개의 문헌군을 다시 세 개의 큰 그룹으로 묶을 수 있다는 점이다.<sup>18)</sup> 즉 첫번째 그룹인 제1군~제3군의 문헌은 모음조화 붕괴 초기의 양상을, 세번째 그룹인 제8군~제11군의 문헌들은 모음조화의 붕괴가 거의 완료된 시점의 양상을 보이는데,<sup>19)</sup> 간행 시기로 보아 그 사이에 놓이는 제4군~제7군의 문헌은 전체 흐름에 비해서 <예외유형 1>의 비율이 지나치게 낮거나(제4군, 제7군) 지나치게 높아(제5군, 제6군), 모음조화 붕괴의 일반적 추이에서 일탈된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3.3. 여기서 상기할 것은 2.2.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예외유형 1>의 비율 추이를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외유형 2>의 비율의 추이를 함께 검

17) 제6군 문헌의 대격 조사 ‘을/을’의 <예외유형 1>의 비율은 예외적이다. 즉 제6군 문헌에서의 <예외유형 1>의 비율은 전반적으로 제5군의 <예외유형 1>의 비율보다 높은데, 대격의 경우는 제5군의 <예외유형 1>이 86.1%인데 비해 제6군의 <예외유형 1>의 비율은 81.5%로 4.6%가 줄어드는 것이다. 그러나 전체적인 추세선의 흐름을 보아 무시해도 좋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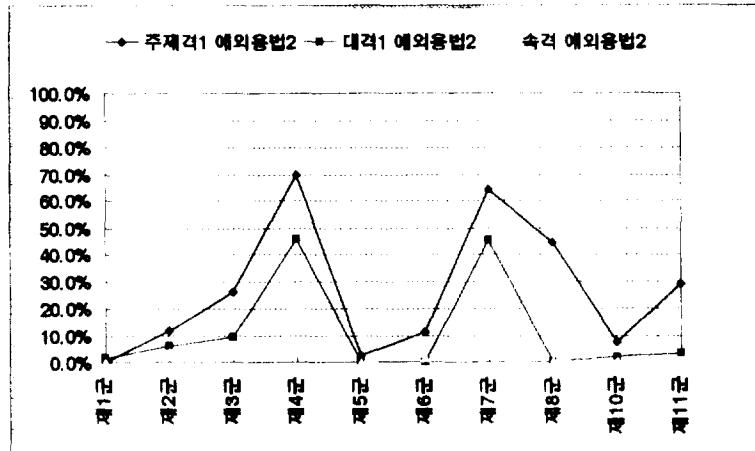
18) 이는 <예외유형 2>의 비율 추이를 볼 때 더욱 분명해진다. 3.3. 참조

19) 이러한 지적은 <예외유형 1>과 <예외유형 2>의 비율이 보여주는 상관 관계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한다. 이에 대해서는 2.2. 및 3.4. 참조

토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선 <예외유형 2>의 추이를 보인 [그래프 2]를 <예외유형 1>의 추이를 보인 [그래프 1]과 비교 검토한 후 3.4.에서 그룹별 모음조화 시현 양상의 해석 문제를 다루기로 한다.

[그래프 2]에서의 예외 비율의 추이는 [그래프 1]에서의 예외 비율의 추이와

[그래프 2] 한자어와 격조사의 모음조화 <예외유형 2> 비율 추이



비교할 때 몇 가지 특징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예외유형 2>의 비율 추이에서는 <예외유형 1>의 비율 추이에서와는 달리 시간의 흐름에 따른 증가나 감소라고 하는 일관된 흐름을 찾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즉 15~16세기 전 시기를 걸친 한 방향으로의 추이를 보이지는 않는 것이다. 그러나 <예외유형 2>의 비율 추이선에서도 우리는 <예외유형 1>의 비율 추이선의 분석을 바탕으로 구분한 세 개 그룹 단위로 <예외유형 2>의 비율 추이가 같은 경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그룹에 속하는 1~3군 문헌에서는 <예외유형 1>의 비율과 <예외유형 2>의 비율이 정비례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2.2.에서 제기한 <예외유형 1>과 <예외유형 2>의 상관 관계에 대한 해석에서 첫째 경우에 해당한다. 둘째 그룹

에서는 <예외유형 1>의 비율과 <예외유형 2>의 비율이 정반대의 양상을 보인다. 즉 인접한 시기의 문헌군보다 상대적으로 <예외유형 1>의 비율이 낮은 제4군과 제7군 문헌의 <예외유형 2>의 비율은 인접 시기의 문헌군보다 더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반대로 인접한 시기의 문헌군보다 상대적으로 <예외유형 1>의 비율이 높은 제4군과 제7군 문헌의 <예외유형 2>의 비율은 인접 시기의 문헌군보다 더 낮아지는 것이다. 여기에는 다양한 배경이 있는데, 3.5.에서 그 배경을 검토한다. 셋째 그룹에서는 격조사별로 <예외유형 2>의 비율과 <예외유형 1>의 비율의 크기가 반전되는 양상을 보인다. 즉 <예외유형 1>의 비율이 다른 격조사보다 큰 격조사는 <예외유형 2>의 비율이 다른 격조사보다 낮고, <예외유형 1>의 비율이 다른 격조사보다 작은 격조사는 <예외유형 2>의 비율이 다른 격조사보다 큰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이 역시 3.4.에서 그 의미를 좀더 자세히 검토한다.

둘째,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일관된 추세를 보이지는 않으나, 격조사 사이의 예외 비율 차이가 일정함이 확인된다. 즉 주제격의 경우 모든 문헌군에서 <예외유형 2>의 비율이 가장 높고, 대격, 속격의 순으로 <예외유형 2>의 비율이 낮은 것이다. 이러한 양상을 보이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유인을 생각할 수 있다. 격조사별로 모음조화 규칙의 봉괴 순서가 일정하게 달랐을 가능성, <예외유형 2>의 출현 유인이 달랐을 가능성, 그룹별로 <예외유형 2>의 출현을 지배하는 기제가 달라졌을 가능성 등을 상정할 수 있는 것이다.

3.4. 첫번째 그룹에 속하는 제1군~제3군 문헌에서는 <예외유형 1>의 비율이 항상 <예외유형 2>의 비율보다 높고, <예외유형 1>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예외유형 2>의 비율도 함께 증가한다. 이는 첫째 그룹의 문헌이 모음조화 봉괴의 초기의 양상을 보임을 의미하며,<sup>20)</sup> 다른 한편으로는 <예외유형 1>을 가져온 변화가 <예외유형 2>를 가져온 변화보다 이른 시기에 발생했거나 <예외유형 2>의 유인이 되었음을 시사한다.

20) 첫째 그룹 문헌의 <예외유형 1>과 <예외유형 2>이 0%~20%의 낮은 비율을 보이는 점도 이 시기의 문헌들이 모음조화 봉괴의 초기 양상을 보인다고 해석하게 된 또하나의 근거이다.

이에 비해 세번째 그룹 제8군~제11군의 문헌들이 보이는 예외 비율의 추이 선에서는 특히 대격조사의 <예외유형 2>의 비율 추이선(—■— 선)과 속격조사의 <예외유형 2>의 비율 추이선(—△— 선)이 낮게 깔리는 점이 주목된다. 즉 제8군 이후의 문헌에서 두 조사의 <예외유형 1>의 비율이 약 80~100%에 달 하는 데 비해, <예외유형 2>의 비율은 10% 미만인 것이다. 이는 2.2.에서 제기한 <예외유형 1>과 <예외유형 2>의 상관 관계에 대한 해석의 둘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바, 두 격조사의 경우 이형태의 통합이 거의 완료된 시점의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주체격 조사의 경우는 <예외유형 1>의 비율이 가장 낮은 반면 <예외유형 2>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이 주목되는 데, 이는 주체격 조사에서의 이형태의 통합이 상대적으로 다른 두 격조사의 경우보다 늦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도 좋을 것이다. 모음조화의 봉괴라는 음운변화는 각 조사별로 그 확산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sup>21)</sup>

위의 두 그룹의 문헌들이 <예외유형 1>과 <예외유형 2> 사이의 상관 관계를 바탕으로 한 모음조화 봉괴 과정에서의 위상 설정에 크게 어려움이 없는 데 비해, 두번째 그룹에 속하는 네 개 문헌군은 문헌군별로 각각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는 모음조화 실현 양상을 바탕으로 했을 때 두번째 그룹에 속하는 문헌군의 위상이 문헌군별로 다른 것을 의미한다.

우선 제4군 문헌에서의 <예외유형 1>의 비율이 제3군의 <예외유형 1>의 비율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이 주목되는데(특히 제3군과 제4군 문헌의 간행 시기 차이는 1년에 불과하다는 점을 상기할 일이다), 이러한 <예외유형 1>의 비율 감소가 제4군 문헌이 모음조화를 잘 지키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예외유형 2>의 동시적 추이를 나타내는 [그래프 2]에서 제4군의 모음조화에서의 예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또한 제4군 문헌의 예외용법의 비율을 제5군과 제6군 문헌에서의 예외 용법의 비율과 비교하면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난다. 제5군과 제6

21) 이는 음운규칙의 점진성을 보여 주는 한 예라고 할 것이다. 모음조화의 예외에 대한 해석에 음운규칙의 점진성이라는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졸고(1997 예정), 음운 규칙의 점진성에 대해서는 Wang(1969) 및 졸고(1986) 참조.

군의 문헌은 제4군 문헌에 비해 <예외유형 1>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아주 높게 나타나는 반면, <예외유형 2>의 비율은 더 낮은 것이다. 결국 <예외유형 1>과 <예외유형 2>의 상관 관계에 대한 1.3.에서의 논의에 따르면 제4군 문헌과 제5·6군 문헌 사이의 어느 시기에 <예외유형 1>과 <예외유형 2>의 상관 관계가 첫째 유형에서 둘째 유형으로 바뀐 것이 아닌가 하는 추론이 가능한 것이다.<sup>22)</sup>

더구나 이들 제5·6군 문헌이 시현하는 모음조화 예외 비율의 양상이 <예외유형 1>과 <예외유형 2>의 상관 관계라는 측면에서 보면 세번째 그룹의 그것과 같다는 점이 주목된다. 즉 제5군과 제6군의 <예외유형 1>, <예외유형 2>의 그래프 추이는 세번째 그룹 제8군~제11군 문헌의 <예외유형 1>, <예외유형 2>의 그래프 추이와 거의 같은 것이다. 다만 <예외유형 1>의 비율은 제5·6군의 것이 조금 낮고, <예외유형 2>의 비율은 제5·6군의 것이 조금 높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들 제5·6군의 문헌은 세번째 그룹의 문헌과 비슷하거나 보다 조금 앞선 시기의 상태를 보인다고 할 수 있으며, 제5·6군 문헌이 모음조화 붕괴가 완료된 시점, 혹은 그 직전의 양상을 보이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제7군 문헌의 모음조화 실현 양상도, 전체의 흐름에서는 돌출되는 양상을 보였지만 <예외유형 1>과 <예외유형 2>의 관계라는 면에서는 세번째 그룹의 문헌들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세번째 그룹의 특징인즉 <예외유형 1>의 비율이 다른 격조사보다 큰 격조사는 <예외유형 2>의 비율이 다른 격조사보다 낮고, <예외유형 1>의 비율이 다른 격조사보다 작은 격조사는 <예외유형 2>의 비율이 다른 격조사보다 큰 양상을 보인다는 점인데, 제7군 문헌의 경우 그 양상이 동일할 뿐 아니라 예외 비율에 따른 격조사의 배열도 동일하다. 즉 <예외유형 1>에서는 속격 조사의 경우가 가장 높고, 대격, 주제격의 순서로 비율이 낮아지는데, <예외유형 2>에서는 반대로 속격조사의 예외 비율이 가장 낮고 대격, 주제격의 순서로 비율이 높아지는 것이다. 또한 <예외유형 1>의 비율은 세번째

22) 이는 간년을 기준으로 한 서술이 아니라, 모음조화 붕괴 과정에서의 위상이라는 관점에서 본 서술이다. 모음조화 붕괴 과정에서의 제4군 문헌과 제5·6군 문헌의 위상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후술 참조

그룹의 문헌이나 제5군·제6군의 문헌보다 낮은데, <예외유형 2>의 비율은 세 번째 그룹의 문헌이나 제5군·제6군의 문헌보다 상당히 높은바, 이는 제7군 문헌이 세번째 그룹의 문헌보다 앞선 시기의 모음조화 붕괴 양상을 반영함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예외유형 1>과 <예외유형 2>의 상관 관계를 바탕으로 하면 제7군 문헌이 제5군과 제6군 문헌보다 앞선 시기의 양태를 보인다고 할 수 있으며, 앞에서 지적한 <예외유형 1>과 <예외유형 2>의 상관 관계가 첫째 유형에서 둘째 유형으로 바뀌는 단계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두번째 그룹 네 문헌의 모음조화 붕괴 과정에서의 위상을 간행 시기와는 달리 <제4군>—<제7군>—<제5군>—<제6군> 순으로 설정 할 수 있음을 말해 준다.

3.5. 이제 두번째 그룹 4개 문헌군이 나머지 두 그룹이 보이는 흐름에서 일탈된 양상을 보이는 까닭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

2.3.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음조화의 예외 출현 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는, 언어 내적 요소 이외에 문헌의 간행 시기·간행 주관자 혹은 편찬자·간행지 혹은 언해문의 배경 방언·한자음 주음 방식을 비롯한 언해 방식 등 언어 외적 요소가 있는데, 이들 4개 문헌군이 보이는 모음조화 붕괴 과정에서의 특이성은 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간행 시기와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제3군의 문헌보다 <예외유형 1>의 비율이 아주 낮은 제4군 문헌이다.<sup>23)</sup> 제3군 문헌의 간행 연도는 1481년이고, 제4군 문헌의 간행 연도는 1482년이므로 제4군 문헌은 외적으로는 제3군 문헌과 간행 시기가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4군 문헌인 《금강경삼가해》와 《남명천계송언해》는 언해 작업이 세종조부터 시작되어 35년에 걸친 작업 끝에 간행된 것임이 중요하다.<sup>24)</sup> 제4군 문헌이 <예외유형 1>의 비율이 제3군에 비해 현저히 낮은 까닭은 결국 언해 작업의 착수 시기에

23) 제7군 문헌과 제8군의 문헌도 그 간행 시기가 비슷하다는 점에서 문제로 제기될 수 있으나, 제7군의 문헌이 보이는 특이성은 배경 방언에 있다. 후술 참조.

24) 이들 두 문헌의 간행 경위에 대해서는 남풍현(1973) 및 심재완(1981)에 자세히 밝혀져 있다.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25)</sup> 언해 착수 시기를 기준으로 한다면 제4군 문헌은 제1군과 제2군 사이에 놓인다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실제 제4군 문헌의 한자어 모음조화에서의 <예외유형 1>의 비율도 그러한 양상을 보인다.

간행 주관자라는 요소에 초점을 두고 보면 제4군 문헌과 제5군 문헌의 예외비율 차이가 문제로 제기된다. 제4군 문헌과 제5군 문헌은 '학조(學祖)'라는 동일 인물에 의해서 언해가 마무리되고 간행된 것인데, 예외용법의 비율이라는 면에서는 극적일 정도로 대조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일차적으로는 두 문헌군의 간행 과정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제4군 문헌의 <예외유형 1>의 비율이 낮은 것은 <언해의 토달기>를 담당한 이의 언어 수행을 반영한 까닭이지 간행 주관자의 언어 수행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한자음의 주음이라고 하는 언해 방식도 영향을 미친 것 중의 하나로 생각할 수 있다. 즉 제4군 문헌은 동국정운식 한자음으로 주음한 문헌인 반면, 제5군 문헌은 현실 한자음으로 주음한 자료인바, 동국정운식 한자음을 주음한 문헌의 격조사의 모음조화가 현실 한자음으로 주음한 자료의 경우보다 인위적 요소의 개입 가능성성이 클 것임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은 것이다.<sup>2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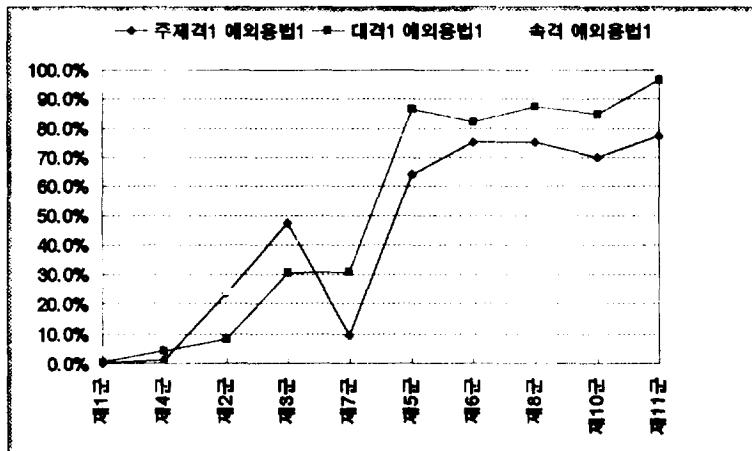
25) 언해 문헌의 간행이 <언해 작업의 방향 설정>→<원문에 토달기>→<언해 완성>→<필사본 작성>→<목판 새김 혹은 활자 조판>→<인쇄>라는 과정을 거친다고 할 때, 격조사의 모음조화는 <원문에 토달기>와 <언해 완성>의 두 과정에서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때 <원문에 토달기> 작업의 결과를 그대로 언해 작업에 반영하는 경우, 격조사의 모음조화는 <원문에 토달기>를 담당한 이의 언어 수행을 반영할 것이다. 제4군 문헌의 경우가 바로 그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제3군의 문헌은 《杜詩》라는 문학 작품을 원문으로 하고, 제4군 문헌은 불경을 대상으로 한다는 차이도 관련이 있을지 모른다. 언해 대상이 된 불경들은 이미 고려조부터 널리 읽힌 것이고 따라서·조선 초기에는 문파에 따라 번역의 전통이 확립되어 있었을 것인 반면, 《杜詩》라는 문학 작품의 경우는 번역자에 따라 번역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6) 동국정운식 한자음을 주음한 경우, 현실 한자음과 모음의 계열이 다르면 언해자는 모음조화를 이루는 격조사의 선택에 고심할 것이다. 현실 한자음과 관계없이 개신 한자음을 따르는 경우, 자신의 실제 발음과의 괴리가 느껴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위한 처리 원칙을 설정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 격조사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때의 처리 원칙은 일차적으로는 《훈민정음》 해례에 기술된 모음의 대립 관계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제1군 문헌의 한자어

언해 문헌에 반영된 방언의 영향이 큰 것으로 제6군과 제7군의 문헌을 지적할 수 있다.<sup>27)</sup> 단적으로 제6군의 문헌은 경상도 방언을 반영한 것이고, 제7군의 문헌들은 전라도 방언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28)</sup> 따라서 이들 문헌군의 모음조화 예외용법의 특이성은 이러한 데에 배경을 두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두 번째 그룹 네 개 문헌군의 모음조화 실현 양상이 나머지 두 그룹 여섯 개의 문헌군이 보인 일반적 추세에서 일탈<sup>29)</sup>된 양상을 보인 것은 모두 그럴만한 언어 외적 요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라프 3] 수정된 한자어와 격조사 모음조화 <예외유형 1> 비율 추이



와 격조사 모음조화의 특이성이 이를 잘 말해 준다.

- 27) 제5군 문헌에서 예외적 용법을 보이는 예들의 비율은 제6군 문헌의 것과 비슷하다. 이런 점에서 제5군 문헌도 제6군 문헌과 같은 언어 배경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28) 제6군 문헌의 간행지와 관련된 논의는 졸고(1994) 제5장 참조  
 29) 여기서의 일탈이란 아예 모음조화를 모르거나 별개의 규칙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문헌의 간행 연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모음조화의 예외가 출현하는 비율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3.6., 3.4. 및 3.5.에서의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보음조화 붕괴 추이의 반영이라는 관점에 따라 문헌군의 배열을 바꾸고 보음조화 예외 비율의 추이를 살펴보면 지금까지의 논의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가 분명해진다.

[그래프 3]은 제4군 문헌을 3.5.에서 지적한 대로 제1군과 제2군 사이에 놓고, 제5군과 제6군 문헌을 세번째 그룹과 묶은 뒤 제7군을 그 앞에 배열한 <예외유형 1>의 추이를 보인 것인데, [그래프 3]을 [그래프 1]과 비교해 보면 세 격조사의 <예외유형 1>의 비율 추이가 훨씬 일관된 흐름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제7군 문헌이 다소 돌출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3.5.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제7군 문헌이 지니고 있는 간행지 방언의 영향일 수도 있고, 제7군 문헌이 지니고 있는 한자어와 격조사 결합에서의 보음조화 실현상의 특징일 수도 있다.<sup>30)</sup>

#### 4. 문헌군간 보음조화 예외용법 비율 대비 Ⅱ : 고유어의 경우

4.1. 고유어와 격조사 결합에서의 예외용법의 비율 추이는 문헌군별 간행 시기에 따른 <예외유형 1>의 추이를 보이는 [그래프 4]와 3장에서 수정한 배열 순서에 따른 <예외유형 1>의 추이를 보이는 [그래프 5]를 함께 제시하고 검토하기로 한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3.4. 및 3.5.에서의 한자어와 격조사 결합에서의 예외용법의 비율을 바탕으로 한 해석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4.2. 고유어와 격조사 결합에서의 <예외유형 1>의 비율 추이를 한자어와 격조사 결합에서의 예외용법의 비율 추이와 비교하면 몇 가지 특징적인 사실이 드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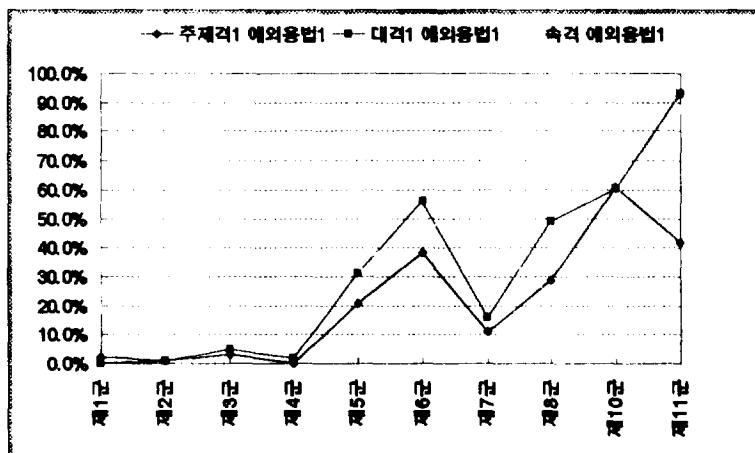
첫째, 예외용법의 비율이 전반적으로 한자어와 격조사 결합의 경우보다 낮다는 점이다. 이는 보음조화의 붕괴가 한자어와 격조사 결합에서 비롯되었을 가능

30) 이러한 해석은 고유어와 격조사 결합에서의 <예외유형 1>의 비율을 보인 [그래프 5]와의 비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그래프 3]과 같은 순서로 배열한 [그래프 5]에서는 제7군 문헌이 전체 추세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기 때문이다.

성을 시사한다.<sup>31)</sup>

둘째, 한자어와 격조사 결합에서의 예외용법의 비율을 바탕으로 나누었던 세 그룹으로의 분류가 고유어와 격조사 결합에서의 예외용법의 비율을 바탕으로 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프 4] 고유어와 격조사 모음조화 <예외유형 1> 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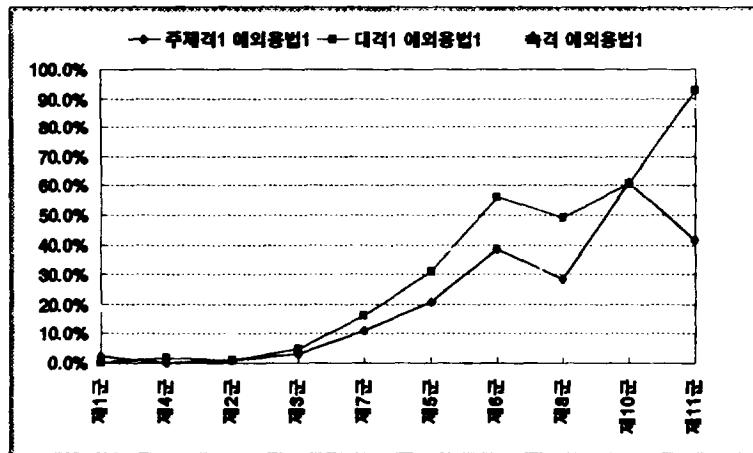


[그래프 4]에서는 <예외유형 1>의 비율이 한자어와 격조사 결합의 경우([그래프 1])와는 달리 전반적으로 인접군 사이의 차이가 크지 않아서 잘 드러나지 않지만 — 특히 제3군 문헌과 제5·6군 문헌의 예외 비율이 한자어의 경우 두드러지게 높은 반면 이 경우에는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는다 — 이러한 사실은 문헌의 간행 시기에 따른 <예외유형 1>의 추이를 보이 [그래프 4]와 수정된 <예

31) 원래의 모음조화 규칙이 형태소 구조체약을 반영한 것이었고 한자어의 경우 그러한 형태소 구조체약에서 자유로운 것이었다면, 한자어와 격조사 결합에서 모음조화의 예외가 먼저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속격 조사의 <예외유형 1>의 경우는 예외적이다. 제4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유어에서의 <예외유형 1>의 비율이 한자어에서의 <예외유형 1>의 비율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것이다. 이는 속격 조사의 내적 구조, 속격 조사와 결합하는 어간 말음절의 구조 등과 관련이 있다. 졸고(1996) 참조.

의유형 1>의 추이를 보인 [그래프 5]를 비교할 때 수정된 추이를 보인 [그래프 5]에서 전체의 흐름이 좀더 일관성을 보인다는 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래프 5]는 한자어와 격조사 결합에서의 모음조화 실현 양상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반영한 것이므로 [그래프 5]가 [그래프 4]보다 더 일관성을 지닐 수 있다는 것은 3장에서의 분석결과를 그대로 고유어와 격조사 결합에서의 모음조화 실현 양상에도 적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그래프 5]에서 제6군과 제8군의 예외 비율이 흐름에서 어긋나는 것이 눈에 띄는데, 이는 제6군의 고유어와 격조사 결합에서의 <예외유형 1>의 발생을 지배하는 규칙의 확산이 제8군의 경우보다 빨랐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는 한자어와 결합하는 경우의 모음조화 불과의 확산 과정과 고유어와 결합하는 경우의 모음조화

[그래프 5] 수정된 고유어와 격조사 모음조화 &lt;예외유형 1&gt; 비율 추이



불과의 확산 과정이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한자어와 격조사 결합에서 모음조화 예외 비율의 추이선과 마찬가지로 격조사 사이의 예외 비율의 추세가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는 점이다.<sup>32)</sup> 이는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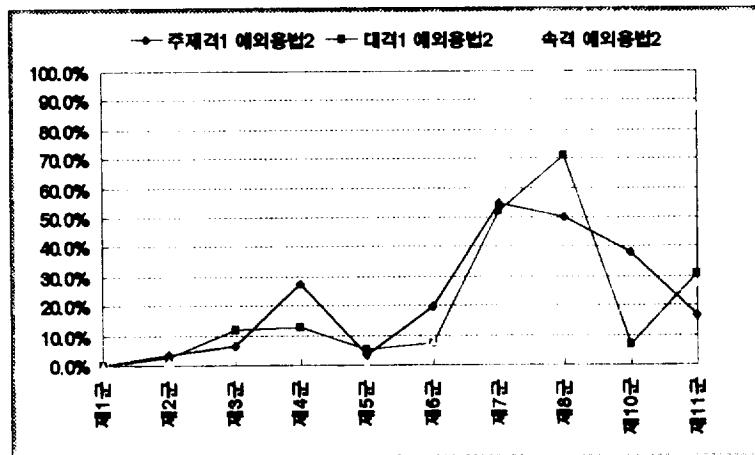
32) 수정된 <예외유형 1>의 추이를 보인 [그래프 5]에서 제5군의 속격조사와 제11군의 주

자어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고유어와 격조사 사이의 모음조화에서의 <예외유형 1>의 발생과 확대가 동일한 유인에 의한 것임을 의미한다.

넷째, 비록 격조사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후대로 내려올수록 예외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그래프 5]에서의 일관성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고유어와 격조사 결합에서의 예외용법의 비율이 전반적으로 한자어와 격조사 결합에서의 모음조화 예외용법의 비율보다 전반적으로 낮다는 점과, 고유어와 격조사 결합에서의 <예외유형 1>의 비율 추이와 한자어와 격조사 결합에서의 <예외유형 1>의 비율 추이가 지니고 있는 공통점을 토대로 이제 우리는 한자어와 격조사 결합에서의 <예외유형 1>과 고유어와 격조사 결합에서의 <예외유형 1>이 같은 유인에 지배되는 음운변화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그래프 6] 고유어와 격조사 모음조화 <예외유형 2> 비율 추이



4.3. 고유어와 격조사 결합에서의 <예외유형 2>의 비율을 보인 [그래프 6]의 검토에서 첫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특징은 3장에서 분류한 세 그룹 중 세번째

제격 조사는 이러한 흐름에 배치된다.

그룹의 <예외유형 2>의 비율이 보여 주는 불규칙성이다. 한자어와 격조사 결합에서의 <예외유형 2>의 비율을 보인 [그래프 2]에서와는 달리 [그래프 6]에서는 문헌군 사이의 흐름이나 격조사 사이의 흐름에서 아무런 공통점도 찾기 어렵고, 또 <예외유형 1>의 비율을 보인 [그래프 4]와의 상관성도 찾기 어려운 것이다.<sup>33)</sup> 두번째 특징은 첫째 그룹에 속하는 1~3군 문헌의 [그래프 4]의 <예외유형 1>의 비율과 [그래프 6]의 <예외유형 2>의 비율이 정비례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는 고유어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예외유형 1>과 <예외유형 2>의 상관 관계에 대한 해석에서 첫째 경우에 해당한다. 세째 특징은 둘째 그룹 문헌군에서도 한자어와 고유어의 격조사 결합에서의 모음조화 실현 양상이 유사하다는 점이다. 즉 [그래프 6]은 [그래프 2]와 같이 <예외유형 1>의 비율과 <예외유형 2>의 비율이 역전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인접한 시기의 문헌군보다 상대적으로 <예외유형 1>의 비율이 낮은 제4군과 제7군 문헌의 <예외유형 2>의 비율은 인접 시기의 문헌군보다 더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반대로 인접한 시기의 문헌군보다 상대적으로 <예외유형 1>의 비율이 높은 제4군과 제7군 문헌의 <예외유형 2>의 비율은 인접 시기문헌군보다 더 낮아지는 것이다. 결국 첫째 그룹과 둘째 그룹의 문헌들이 시현하는 고유어와 격조사 결합에서의 <예외유형 2>의 비율은 한자어와 격조사 결합에서의 <예외유형 2>의 비율과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고 결론지을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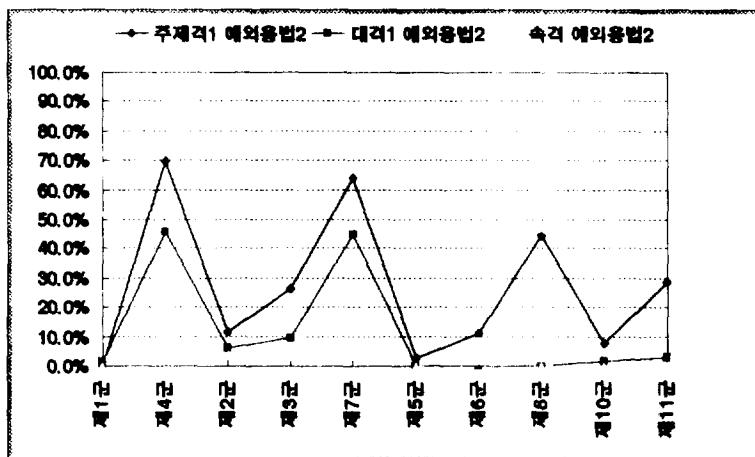
4.4. 마지막으로 남은 문제는 <예외유형 2>의 비율이 각 문헌군에 따라 그리고 격조사별로 작지 않은 편차를 보이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점이다. 현재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론의 여지가 없는 답을 찾기 어렵다. 여기서는 이 문제를 한자어와 고유어의 격조사 결합에서의 <예외유형 2>의 비율 추이의 비교를 통해 간단히 검토하고자 한다.

[그래프 7]과 [그래프 8]은 각각 문헌별 위상을 수정한 한자어 및 고유어와

33)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유어와 격조사 결합에서의 <예외유형 2>의 비율 추이가 3장 및 4.2에서 얻은 결론의 타당성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임을 모음조화 실현 양상에서의 각 문헌군의 위상을 반영하도록 수정된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4.4.에서 별도로 다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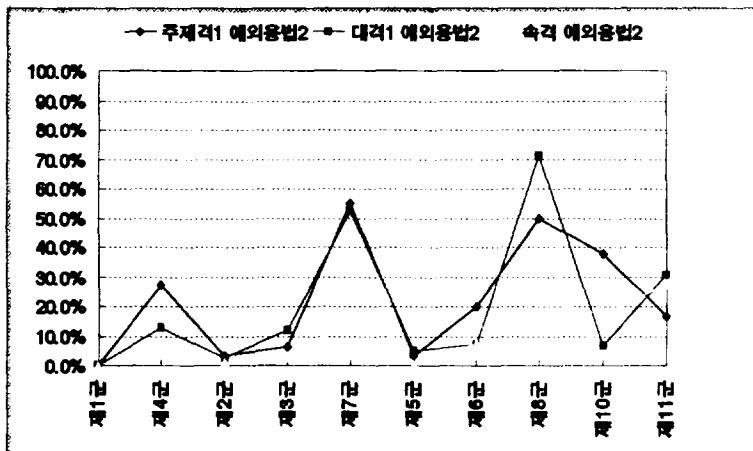
격조사 결합에서의 <예외유형 2>의 비율 추이를 보인 것인데, 단순히 시기별로 한자어와 고유어의 <예외유형 2>의 비율 추이를 보인 [그래프 2]와 [그래프 6]을 비교할 때와는 달리, <예외유형 2>의 비율 추이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이 적확히 드러난다.

[그래프 7] 수정된 한자어와 격조사 모음조화 <예외유형 2> 비율 추이



즉 제4군, 제7군, 제8군 문헌에서의 <예외유형 2>의 비율이 인접군의 문헌들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들 세 문헌군의 <예외유형 1>의 비율은 수정된 고유어와 격조사 결합에서의 <예외유형 1>의 비율 추이선에서는 ([그래프 5]) 전체 추이선의 흐름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던바, <예외유형 2>의 비율 추이는 왜 이렇게 다른 양상을 보이는지를 설명하기 쉽지 않은 것이다. 더구나 제4군 문헌과 제7군 문헌의 특이성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도 지적된 바 있지만, 제8군 문헌의 경우는 <예외유형 1>의 비율 추이선에서는 전혀 돌출되는 양상을 보이지 않았는데 [그래프 8]에서는 가장 높은 예외 비율을 보이기 때문에 더욱 설명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해서 주제격 조사의 경우나 속격조사의 경우는 용례의 수가 적기 때문에 비율의 신뢰도를 문제 삼을 수도 있겠으나,<sup>34)</sup>

[그래프 8] 수정된 고유어와 격조사 모음조화 &lt;예외유형 2&gt; 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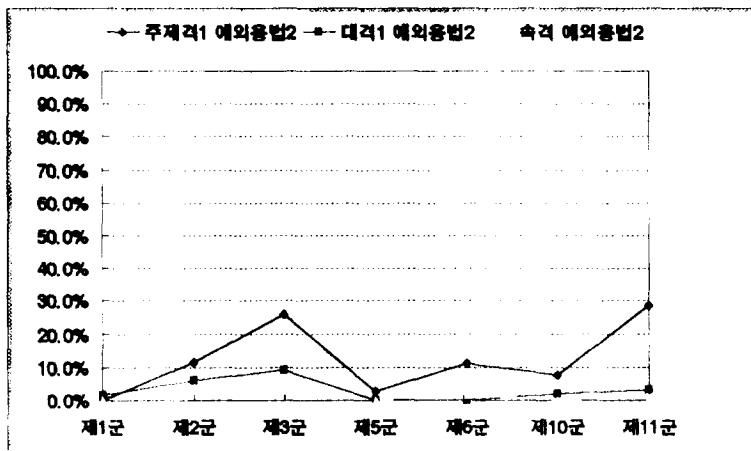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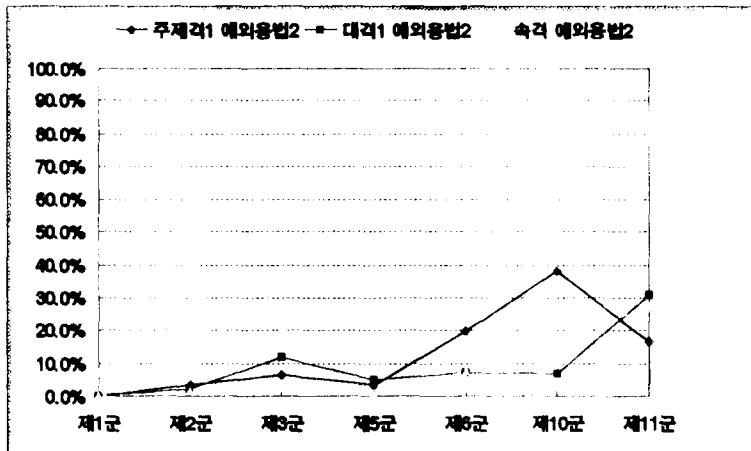
대격 조사의 경우는 그렇지도 않다. 대격 조사 ‘을/을’의 용례가 31개인데, 그 중에서 22개의 용례가 <예외유형 2>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단순히 용례의 많고 적음에 따른 문제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결국 이들 세 문현군에서의 <예외유형 2>의 비율이 높은 것은 문현군 개별적인 특성에 기인한다고 설명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제4군, 제7군, 제8군 문현에서의 <예외유형 2>의 비율이 다른 문현들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것은 제4군, 제7군, 제8군 문현에서의 <예외유형 2>의 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문현군들이 보여 주는 <예외유형 2>의 흐름을 보면 뚜렷하게 드러난다.

[그래프 9]와 [그래프 10]은 각각 제4·7·8군을 제외한 고유어 및 한자어와 격조사 모음조화 <예외유형 2> 비율 추이를 보인 것인데, [그래프 7], [그래프 8]과 비교할 때 <예외유형 2>의 비율 추이를 좀더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34) 주 11)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설소축 모음 어간을 가지는 고유어와 결합하는 주제격 조사 ‘온/은’의 용례는 4개이며, 속격 조사 ‘이/의’의 용례는 9개뿐이다.

[그래프 9] 4, 7, 8군을 제외한 고유어와 격조사 모음조화 &lt;예외유형 2&gt; 비율 추이



[그래프 10] 4, 7, 8군을 제외한 한자어와 격조사 모음조화 &lt;예외유형 2&gt; 비율 추이

## 5. 결론

5.1. 이 글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모음조화 예외 출현 비율의 일반적 추세를 확인하고 그를 바탕으로 후기 중세국어의 문헌들이 모음조화 실현 양상이라는 측면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밝히는 데에 있었다. 본고에서의 검토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들을 얻을 수 있었다.

① 모음조화의 예외는 후대로 내려올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는 모음조화라는 음운 현상이 약화되는 과정을 밟고 있음을 의미한다.

② 15~16세기의 11개 문헌군은 크게 모음조화 붕괴의 초기 양상을 반영한 제1군~제3군, 모음조화 붕괴의 말기 양상을 반영한 제8군~제11군, 그리고 문헌의 실제 간행 시기와는 다른 양태를 보이는 제4군, 제5군, 제6군, 제7군의 세 그룹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때 제4군~제7군의 문헌이 보이는 특이성은 간행 과정, 배경 방언 등 언어 외적 요소의 영향에 의한 것이다.

③ 15~16세기의 문헌군은 모음조화 실현 양상이라는 면에서 보면 <제1군>—<제4군>—<제2군>—<제3군>—<제7군>—<제5군>—<제6군>—<제8군>—<제10군>—<제11군>의 순으로 위상을 설정할 수 있다. 이는 제4군과 제7군이 실제 간행 연도보다 앞선 시기의 모음조화 실현 양상을 반영함을 의미하며, 제5·6군의 경우는 간행 시기는 각각 15세기 말, 16세기 초이지만, 실제 모음조화 실현에서의 <예외유형 1>의 비율이 보여 주는 것은 16세기 말의 문헌인 제8군~제11군의 문헌과 유사함을 반영한 결과이다.

④ 모음조화 예외 용법의 비율은 전반적으로 고유어와 격조사의 결합에서보다는 한자어와 격조사의 결합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 이는 모음조화의 붕괴가 한자어라는 범주에서 먼저 일어났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⑤ 모음조화 예외 용법의 비율은 또한 격조사 별로 그 높고 낮음이 일정한 양상을 보인다. 이는 모음조화 규칙의 붕괴가 격조사 별로 점진적으로 적용되었음을 의미한다.

⑥ <예외유형 1>과 <예외유형 2>는 고유어와 한자어의 경우 모두 정비례하

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3장에서 배열한 순서에 따를 때 제6군 이후의 문헌에서는 <예외유형 2>의 비율이 오히려 낮아지는바 이는 이 시기에 이르러 한자어와 격조사 결합에서의 모음조화의 붕괴가 완료 단계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

⑦ 제4군과 제7군 문헌은 특히 <예외유형 2>의 출현에 있어 <예외유형 1>과는 무관하게 높은 비율을 보인다. 이는 문헌 개별적 현상으로 이들 두 문헌군에서의 <예외유형 2>는 비음운론적인 유인에 의해 시현되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현단계에서 구체적으로 그 유인을 적바롭하기는 어렵지만, 불경의 번역에서 나타나는 특이한 양상이 아닌가 판단된다.

5.2.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할 때 우리는 앞으로의 모음조화에 대한 연구 특히 모음조화의 붕괴 유인에 대한 음운론적 해석과 관련해서 유의해야 할 것들을 정리할 수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① 모음조화 붕괴 과정에 대한 분석에서는 무엇보다도 분석 대상이 된 문헌이 지니고 있는 모음조화 붕괴 과정에서의 위상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특히 제5군의 문헌(《진언권공·삼단시식문》)이나 제6군 문헌(《번역노걸대》《번역박통사》《번역소학》《이륜행실도》《정속언해》)의 경우는 16세기 말의 문헌들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는 데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며,<sup>35)</sup> 제4군 문헌(《금강경삼가해》《남명천계송언해》)과 제7군 문헌(《몽산화상육도보설언해》《선가귀감언해》《초발심자경문(송광사판)》《부모온중경언해(징광사판)》)의 경우는 간행시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이른 시기의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 모음조화 예외에 있어서 <예외유형 1>과 <예외유형 2>의 상관 관계에 대한 좀더 깊은 천착이 필요하다. <예외유형 2>의 출현 비율은 한자어와 격조사 결합의 경우나 고유어와 격조사 결합의 경우를 막론하고 대체로 <예외유형 1>의 비율에 정비례하는 양상을 보이는바, 그 음운변화에 있어서의 의미가 모음

35) 제6군 문헌의 모음조화 붕괴 과정에서의 위상은 졸고(1994) 5장에서 분석한 ‘.’의 제1 단계 변화의 번영에서 나타난 양상과 같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의 제1단계 변화와 모음조화 붕괴 사이의 상관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조화라는 음운과정의 소멸과의 관계 속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③ <예외유형 2>의 출현 비율은 각 문헌별로 통시적 관점에서는 언어 내적 유인을 통해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한 해명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는다.

### <참고 문헌>

- 김완진(1971a), <음운현상과 형태론적 제약>, 『학술원 논문집(인문·사회과학편)』 10, 대한민국 학술원, 김완진(1971b) 재수록.
- 김완진(1971b), 『국어음운체계의 연구』, 서울 : 일조각.
- 김완진(1978), <모음체계와 모음조화에 대한 반성>, 『어학연구』 14-2, 서울대 어학연구소, 김완진(1996) 재수록.
- 김완진(1985), <모음조화의 예외에 대한 연구>, 『한국문화』 6,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김완진(1996) 재수록.
- 김완진(1996), 『음운과 문자』, 서울 : 신구문화사.
- 김윤경(1996), 『옹용언어학과 통계학』, 서울 : 한국문화사.
- 남풍현(1973), <남명천계송언해 해제>, 『남명천계송언해(영인본)』,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도수희(1970), <모음조화의 오산문제>, 『국어국문학』 49·50 합집, 국어국문학회, 도수희(1987) 재수록.
- 도수희(1985), <국어음운사에 있어서의 부음 y에 대하여>, 『한글』 179, 한글학회, 도수희(1987) 재수록.
- 도수희(1987), 『한국어 음운사 연구』, 서울 : 탑출판사.
- 박종희(1985), <모음조화의 붕괴 요인에 대하여>, 『선오당 김형기 선생 편집기념 국어학논총』, 박종희(1993) 재수록.
- 박종희(1993), 『국어음운론연구Ⅱ』, 원광대학교 출판국.
- 박종희(1995), <중세국어의 이중모음과 모음조화>, 『국어국문학』 114, 국

## 어국문화회.

- 박창원(1985), <국어 모음체계에 대한 한 가설>, 『국어국문학』 95, 국어국문학회.
- 백두현(1993), 『영남 문헌어의 음운사 연구』, 서울 : 태학사.
- 송기중(1992), <이론적 측면에서 본 15세기 국어의 、음, 모음체계, 모음조화>, 『국어학』 22집, 국어학회.
- 송 민(1986), 『전기 근대국어 음운론 연구』, 서울 : 탑출판사.
- 심재완(1981), <해제 금강경삼가해>, 『금강경삼가해(영인본)』, 영남대학교출판부.
- 안병희(1992), 『국어사 자료 연구』, 서울 : 문학과지성사.
- 이근규(1986), 『중세국어 모음조화의 연구』, 대전 : 창학사.
- 이기문(1959/1978), 『십육세기 국어의 연구』, 서울 : 탑출판사.
- 이기문(1961), 『국어사개설』, 서울 : 민중서관.
- 이기문(1968), <모음조화와 모음체계>, 『이승녕박사 송수기념논총』.
- 이기문(1969), <중세국어 음운론의 재문제>, 『진단학보』 32, 진단학회.
- 이기문(1971), <모음조화의 이론>, 『어학연구』 7-2, 서울대 어학연구소.
- 이기문(1972/1977), 『국어음운사연구』, 서울 : 탑출판사.
- 이기문(1979), <중세국어 모음론의 현상과 과제>, 『동양학』 9,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 이병근(1970), <모음체계와 비원순모음화>, 『동아문화』 9집, 서울대 동아문화연구소(이병근(1979) 재수록).
- 이병근(1976), <19세기 국어의 모음체계와 모음조화>, 『국어국문학』 72 · 73 합집(이병근(1979) 재수록).
- 이병근(1979), 『음운현상에 있어서의 제약』, 서울 : 탑출판사.
- 이승녕(1947), <모음조화연구>, 『진단학보』 16, 진단학회.
- 이승녕(1949/1954), 『국어음운론연구 제1집 、' 음고』, 올유문화사.
- 이승녕(1959), < 、' 음고 재론>, 『학술원논문집』 1.
- 이승녕(1977), </ 、/음의 소실기 추정에 대하여>, 『학술원논문집(인문 · 사회

- 과학)》 16.
- 이승녕(1988), 《이승녕국어학선집 I - 음운편(1)》, 서울 : 민음사.
- 이승재(1982), <형태소 경계의 음운론적 기능에 대하여>, 《백영정병옥선생 환갑기념논총 I 국어학연구》, 서울 : 신구문화사.
- 정연찬(1989), <15세기 국어의 단모음체계와 그에 떨린 몇 가지 문제>, 《국어학》 18, 국어학회.
- 최명우(1993), <경상북도의 방언지리학-부사형 어미 '-아X'의 모음조화를 중심으로>, 《진단학보》 73, 진단학회.
- 최명우(1995), <'X | ]Vst 어 Y'의 음운론>, 《진단학보》 79, 진단학회.
- 최태영(1980), <모음조화와 모음체계 및 매개모음>, 《연암 현평효박사 회갑 기념논총》.
- 최태영(1983), <모음조화론-중세국어 형태음소론적 연구의 일환으로>, 《일산 김준영선생 화갑기념논총》.
- 한영균(1986), <방언의 지리언어학적 연구와 언어지도>, 《국어생활》 1986년 여름호, 국어연구소.
- 한영균(1990), <모음조화의 붕괴와 '.'의 제1단계 변화>, 《국어학》 20, 국어학회.
- 한영균(1994), <후기 중세국어의 모음조화 연구>,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영균(1996), <모음조화의 붕괴 유인에 대한 재검토>, 《울산어문논집》 11, 울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한영균(1997 예정), <모음조화의 예외에 대한 어휘음운론적 해석>, 《최태영 선생회갑기념논문집》.
- Harris, John(1989), *Towards a lexical analysis of sound change in progress*, Journal of Linguistics 25, pp.35~56.
- Wang, William S-Y.(1969), *Competing Changes as a Cause of Residue*, Language vol. 45~1, pp.9~25.
- Woods, A., Fletcher, P. & Hughes, A.(1986), *Statistics in language studies*, Cambridge University Press.